

바람

정용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어둠 속에서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지고 바람이 부는 일들. 흐르고 잠기는 일들.

이국의 해변. 모래밭에 박힌 거대한 고래 뼈들. 버려진 농토와 헛간.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 무덤 뒤에 피었다 지는 꽃들. 시든 풀들.

나와는 영원히 무관한 이름들. 관계할 수 없는 육체들. 폴, 윌리엄, 릴케, 파스칼, 시샤, 루이, 토마스, 아이리스, 이스마엘, 홀리오, 헨리, 유키, 마리오, 룬.

모르게 태어나 모르게 죽어가는 생물들이 모여 사는 세계.

그 시간을 나는 바람이라고 명하겠네.

바람이 흐르고 바람이 지나가고 바람 속에 살다 바람과 함께 썩어가는 물질들. 광물, 살, 뼈, 피, 잎, 나무, 흙, 물, 소금, 냄새, 동물, 식물, 사물, 죽어 돌이 된 화석들.

이들의 밤과 낮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바람. 바람은 손가락이 없어 쓸 수 없고 눈동자가 없어 볼 수 없지. 하지만 바람은 바람. 바람이 멈추는 곳에 먼지가 쌓이고 사물은 무너지네.

모래가 날리는 세계. 깊고 넓은 사막.

소금이 태어나는 바다.

물 없는 구멍 같은 바다에 서서 나는 당신을 부릅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 영원히 볼 수 없는 생물.

이를테면 유키? 아니면 시샤? 혹은 룬.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은 잠든 새벽. 등 뒤에 감춰진 그림자.

지나간 시간. 어제의 계절.

그 속에 서 있는 당신의 이름은 룬.

시간은 바람. 당신은 사람이 아닌 사람. 동식물이 아닌 동식물.

사물은 움직이고 생물은 영원히 사는 세계.

그곳은 천국도 아닌 지옥도 아닌 그저 보이지 않는 세계.

룬의 피는 투명하고 혈관에서는 바람이 흐르네.

어둠속에서 고요히 움직이는 물. 발 없이 구르는 작은 돌맹이.

땅속에서 느리게 전진하는 광물들.

살았다고 죽었다고 할 수도 없는,

움직인다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는,

이상한 운동.

이를테면 곰팡이의 삶이나 그림자 밑에 모여 있는 어둠들,
어둠 속에 점성 없이 뭉쳐있는 먼지들.
살았다고도 죽었다고도 할 수 없는 것들의 기이한 생.
름, 그것을 삶이라고 할 수 있나.

름, 당신의 존재방식을 '산다'라고 말해도 되는가.
눈 감아도 바람은 불고 새벽에도 무엇인가는 태어나고
물속에서도 화산은 폭발하고
까만 밤 어두운 산속에서도 두 눈을 뜨고 자라는 것들이 있네.

이 세계가 파괴되더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해.
친구들이 죽고 부모와 내 아이는 죽네. 불 속에서 먼지가 되는 살과 뼈.
내가 죽으면 옛날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지나
죽었다 살고 죽었다 살며 무한히 반복되는 어떤 소멸.
영원한 것들은 어둠 속에 숨어 끝없이 살고 끝없이 죽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시간은 바람. 바람은 불고 영원히 불고 끝없이 부네.